

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큰 문제의 하나
가 텔레비전이다. 서민층에 있어서 그것은
은 친구들의 한자리의 모인수 있게 하는 유
일한 매개물이기도 하다. 그러나 텔레비전
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의 너무도 크
기 때문에 부모들은 고민한다.



중하다. 그
구석구석의
안방 깊숙이
모든 어린이
준다고 하겠다.
일반적으로
자식에게 나쁜 영향을
장소를 피해 교육할 시켰다는
것이다. 어떤
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랴
는 오늘날은 심천지교가 불가
까닭은 어디를 가나 패스칼이
취투해 있기 때문이다. 그중에도
자리잡은 텔레비전만 다를
모든 어린이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
준다고 하겠다. 이렇게 상업적인 관점에서
일반적으로 남용(濫用)되고 있는 텔레비전

의 효과가 우리 생활에 특히 어린이 교
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을 어떻게 막
을 것인가?
어떤 피아노 선전광고에서는 7세 안팎
의 어린이가 부모가 한아를 안겨 준를
직한 선물상자들을 광다락에 내놓았이 천
다. 이유인즉 원하는 「피아노」를 안 사줬다
는 것이다. 드디어 그 부모는 「피아노」를 사

TV와 어린이

주어 만족해 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화면
에 나온다. 사할 수 없는 가정의 어린이
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?
인간의 개구장(開口)인 눈(眼鏡)을 쓰고
칼을 휘두르고 나무뿔에 숨은 아이는 세
충으로 친구를 겨누어 줄을 당기고 서로
패리고 질질 끌고 하는 장난치고는 너무
도 심한 화면이 나오는 것이 이것 역시 어

면 의류(衣類) 선전광고이다. 그것이 하나
의 광고로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나
는 모른다. 그러나 이런 것이 어린이들에게
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
을까?
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보도(報道)의 사
회면에서 삼별한 범죄
행위를 보고 듣고 전

울을 느끼고 있다.
거기에는 집안에서까지
그같은 위험성을 아무런 고려도 없이 방
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.
어린이에게 박려는 예절(禮節)을 가르
쳐준다. 음식은 단정하게 앉았도록 떠 넣
을 것을 일러주었다. 그런데 아이가 어느
날 갑자기 입을 다물수 없을 정도로 입



<여성단체 협의회
사무국장>

자 庚 淑

에다 음식을 퍼 넣는다. 그때 책망을 했더
니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 한마디로 정
당성(正當性)을 주장한다.
그러고 보니 식품광고는 거의 예외 없이
그런 모양으로 음식의 맛을 파시(誇示)하
고 있다. 이로서 아이들은 얼마와 텔레비
전 사이에서 잘못된 평가가 마련이다. 혹은
텔레비전을 보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
라는 이론도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우리대
서민층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들은
어마어마한 저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좁
은 집에서 오글오글해야 한다. 그런 판
국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결국 갖지
말라는 말이 될 것이다.
오늘의 생활(生活)의 치열한 경쟁전이고
그로 인한 부자유는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
알지만 적어도 이나타의 장래를 책임진 우
리 어린이들의 보호를 호소하는 엄마들의
소리를 외면할수 있을까?